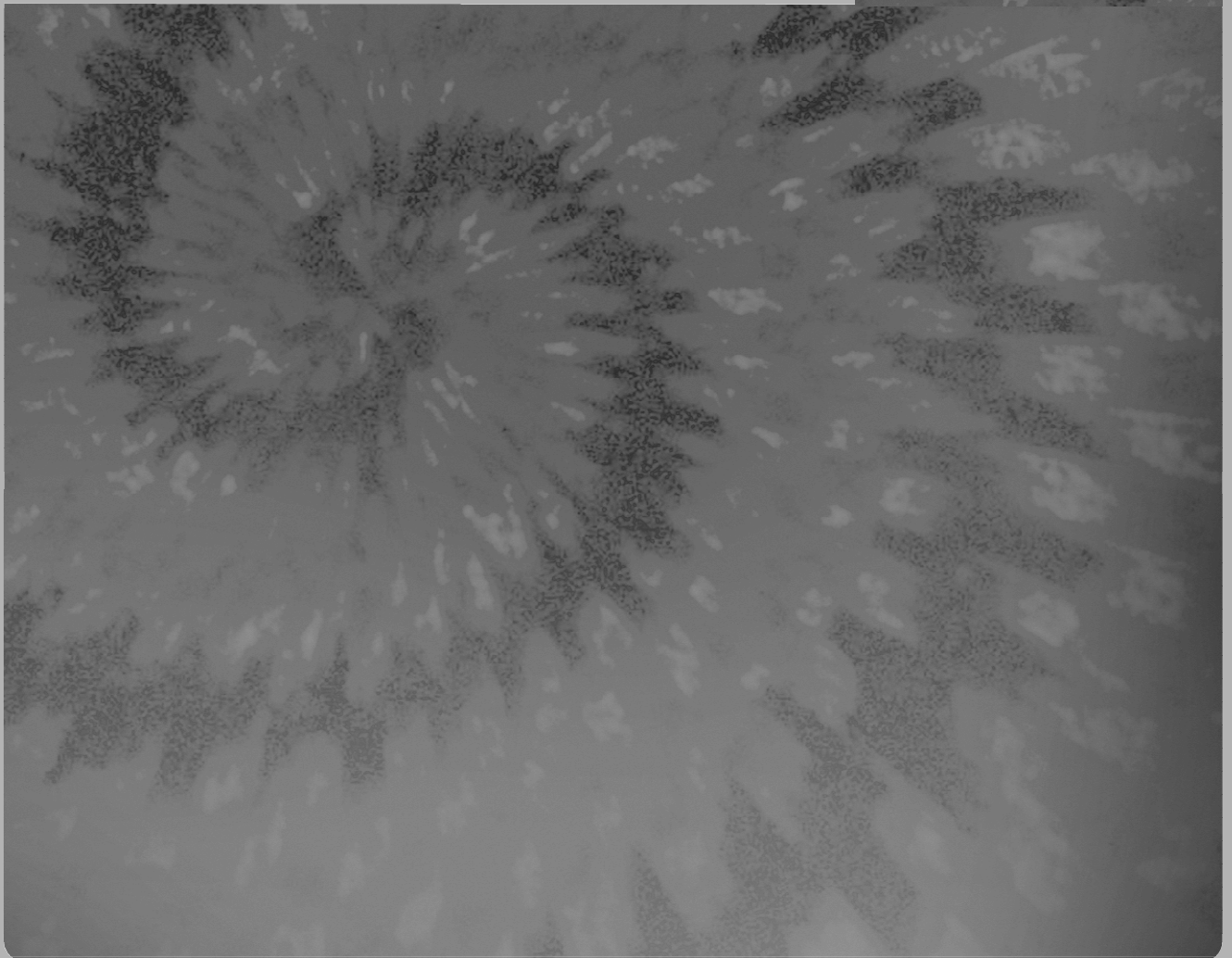


2 0 0 6 마 약 류 범 죄 백 서

제1장

서론



제1절 마약류의 개요

1. 정 의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 시켜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건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음
-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 법률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등이 있음

2. 종 류

가. 마약류의 일반적인 분류

-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양양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에서 신

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킴

- 일반적으로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로, 의존성면에서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반합성 마약으로, 그리고 제조원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함

나.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1) 마 약

가) 개 요

-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나) 종 류

(1) 천연마약

(가) 양귀비

- 양귀비는 일명 ‘앵속’ (opium poppy, 罂粟)이라 불리우는 식물로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식물은 *Papaver Somniferum* L. 종과 *Papaver Setigerum* D.C. 종임



[그림 1-1] 양귀비

- 기원전 5,000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편에 관한 지식을 돌에 새겨서 전한 것이 아편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이며, 그 뒤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세기경 양귀비에서 추출한 액체를 질병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고 함
-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속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삼각지대(미얀마· 라오스· 태국 접경지역) 및 황금의 초생달지대(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음
- 양귀비라는 명칭은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

길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 국내에서의 양귀비는 대부분 농어촌, 산간지역에서 가정 상비약이나 동물 치료약으로 밀경작 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음

(나) 아편(阿片)

- 아편(opium)은 설익은 양귀비의 열매에 상처를 내어 흘러내리는 우유빛 추출액을 60℃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시킨 암갈색의 덩어리로 생아편이라고도 함



[그림 1-2] 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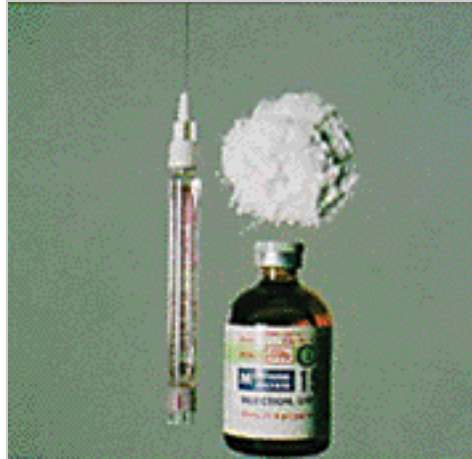
- 민간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아편을 처음 한두 번 흡입하였을 때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하는 등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약효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흡입을 하여야 되고 이는 결국 심각한 중독 현상으로 이어짐
- 아편의 남용이 계속되면 남용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식욕과 성욕을 상실하고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시간대임
- 이러한 폐단으로 영국과 아편전쟁(1840~1842)을 벌였던 중국(당시 淸國)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음



[그림 1-3]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는 모습

(다) 모르핀

- 모르핀(morphine)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강력한 진통성을 지닌 알칼로이드(alkaloid)로서 1805년 독일 약사 Sertilrner가 최초로 아편에서 분리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Morpheus(꿈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고 명명함
- 아편으로부터 추출된 모르핀은 코데인으로 전환되고 헤로인의 주원료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진통, 진정, 진해, 최면효과가 뛰어난 반면, 부작용으로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사용 중단시 심한 금단 증상을 일으킴
- 모르핀에 중독된 자들은 보통 하루에 3회 정도 이를 투약하는데, 1회 투약량은 10~20mg 정도로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에 120mg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mg 이상을 투약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하게 됨



[그림 1-4] 모르핀

(라) 코데인

- 코데인(codeine)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칼로이드(alkaloid)의 일종으로서 의학적으로 진통작용은 모르핀의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며 통증을 억제하는 진해 및 진정작용은 탁월하며, 비교적 신체적 의존성은 적은 편이나 남용할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함
-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형상은 무취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분말, 정제, 캡슐 또는 감기약과 같은 용액의 액상을 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제품명 복방감초편【몰핀(3mg/g)과 코데인(1.3mg/g)의 성분이 함께 있음】이 살빼는 약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로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마) 헤로인

-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즉 헤로인(heroin)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만든 천연마약임

-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형태로 나타나며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임



[그림 1-5] 헤로인

- 모르핀을 원료로 한 만큼 일반적인 약리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함
- 헤로인은 ‘용감한 · 강력한’의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된 말로서 1874년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898년 독일 바이엘사가 진통제로 시판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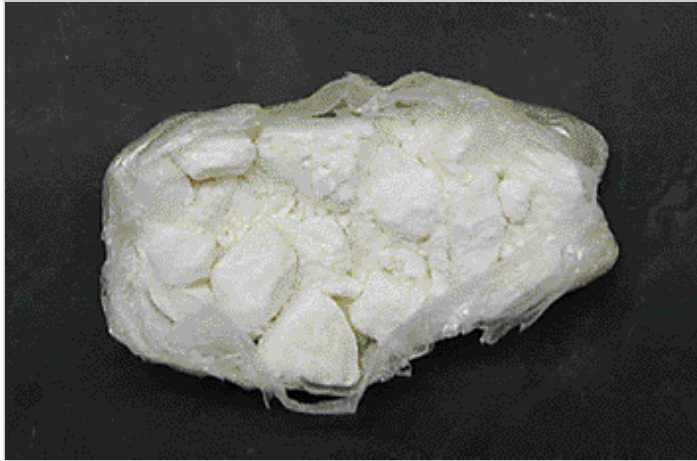
(바) 코카인

- 코카인(cocaine)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임
- 코카인을 씹으면 잎속의 알칼로이드가 사람의 점막에 흡수되어 지각신경 말단을 자극하는데, 고대 잉카제국에서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중 최면효과를 내기 위해, 서민들은 일상의 배고픔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함



[그림 1-6] 코카나무와 열매

- 1532년경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시 유럽에 전해진 코카잎은 1800년대 중반에 코카인 성분이 분리되었으며, 1873년에는 의료용 진통제로서 처음 사용되었음
- 남미일대에서 재배된 코카잎은 농부가 직접 잎사귀를 가공하여 코카페이스트(반죽)를 만들고 이를 정제하여 코카인을 제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글내 밀제조시설로 운반되어 그곳에서 은밀히 코카인 추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엄밀한 규제하에 코카인을 정식 생산하여 국소용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음
- 코카인의 사용방법은 남미의 일부지역 사람들은 직접 코카잎을 씹거나 코카페이스트를 흡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남용자들은 수정체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주사를 놓아 투약함
-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다니는 느낌의 환각이 일어나고,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하며 열과 함께 경련이 일어나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함



[그림 1-7] 코카인



[그림 1-8] 크랙

- 한편 크랙(Crack)은 코카인과 탄산나트륨 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열한 다음 냉각시켜 추출하는 백색 결정체로서 코카인보다 몇 배나 약효가 강하고 중독성이 높으며, 유리관에 넣어 가열, 기포화시켜 흡입하는 것으로 주로 미국에서 남용되던 것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캐나다, 유럽국가로 확산되고 있음

(2) 합성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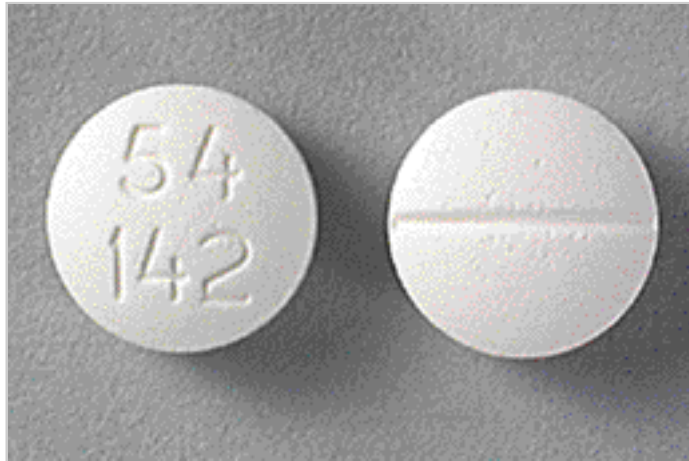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가지면서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 모르핀과 같은 정도의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핀난(morphinan)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치딘계와 메사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음

(가) 페치딘계

- 페치딘(pethidine)은 모르핀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합성마약으로 1939년 독일 헤켈제약(Hoechst)의 O. Eisleb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어 당시 'Dolantin' 이란 제품명으로 시판되었고, Demerol, Pethadel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하며 현재 알려진 종류로는 페치딘, 펜타닐, 디펜녹실레이트 등 약 23종이 있음
- 페치딘은 화학적으로는 모르핀과 다르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가져오는 점에 있어서 모르핀과 유사하고 진통효과 외에 진정효과도 있으며 투약시 3~6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진통제로서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임

(나) 메사돈계

- 메사돈(methadone)은 2차대전 중 독일 헤켈제약(Hoechst)에 의해 모르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합성마약으로 현재 메사돈, 아세틸메사돌, 디피파논 등 약 22종이 알려져 있음
- 개발 당시 메사돈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작 2차대전 중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화학적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한편 약효가 모르핀보다 더 긴 24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전후 마약중독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당시 23개사의 제약회사들이 합성마약인 메사돈을 일반약품에 불법 혼합하여 해열진통제, 국소마취제, 비타민 영양제주사 등으로 속이고 팔다가 수만 명의 마약중독자를 발생시킨 소위 '메사돈 파동' 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그림 1-9] 메사돈

2) 향정신성의약품

가) 개 요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킴
-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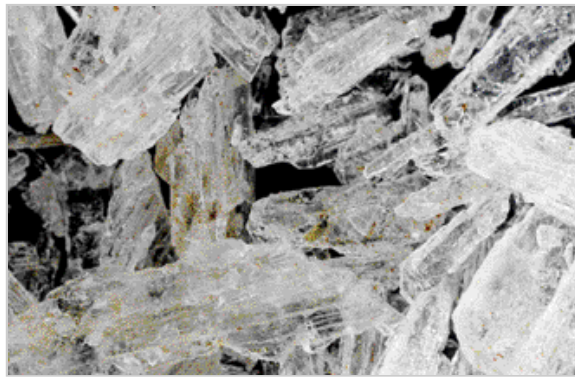
-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약리작용에 따라 환각제 및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 억제제(진정제)로 나눌 수 있음

나) 종 류

(1) 메스암페타민

-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로서 속칭 ‘히로뽕’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암페타민류에는 메스암페타민을 비롯 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과 암페타민 혼합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강한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시킴

- 메스암페타민은 결정체·가루·액체형태의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로도 불리며, 불법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또는 ‘충’으로 불리고 있음. 미국의 경우 결정체는 ‘ice’, 가루·액체형태는 ‘speed’로 각 호칭하며,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사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호칭하고 있음



[그림 1-10] 메스암페타민

-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 치료제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물질이며, 1893년 최초로 합성에 성공함



[그림 1-11] 마 황

- 메스암페타민은 일본의 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 (영문상품명 ‘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하였으며,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지금까지 메스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던 ‘메스암페타민’이 전쟁 중에는 군수용품으로 대량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2)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된 이래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시중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마약으로 둔갑, 현재 전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는 암페타민계 정제형 합성마약의 일종임



[그림 1-12] MDMA

- MDMA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MDMA를 복용하면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약(feel good drug), 포옹마약(hug drug)으로도 지칭되고 있음
- 약리적 작용으로 복용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인 흥분감을 경험하며, 약효는 3~4시간을 지속하고, 과다복용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도 함

(3) LSD

-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 Albert Hofmann에 의하여 최초로 개발된 무미, 무취, 무색의 환각제로 종이 또는 정제에 LSD 용액을 흡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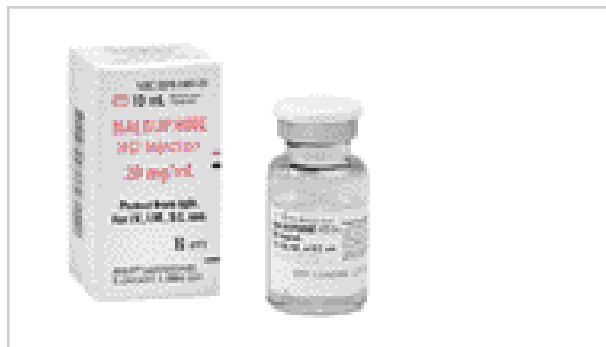
[그림 1-13] LSD 스티커



[그림 1-14] 정제형 LSD

(4) 날부핀(Nalbuphine)

- 날부핀은 응급환자용 강력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환각성으로 인해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 약물로 널리 남용되고 있으며, 일명 ‘누바인’ 이라고도 불리고 있음



[그림 1-15] 날부핀

- 피하 주사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를 보이며 약효 지속시간은 3~6시간이며, 날부핀 3mg은 필로폰 6mg에 해당하는 강력한 환각 효과가 있음

며,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 두통, 환각공상 등 정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 부작용이 있음

- 제약회사 직원, 병원 의사 및 사무장, 의약품 도·소매업자, 약국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하여 필로폰 등 대용 남용자들에게 유통되고 있음

(5)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진해거담제로서 일명 ‘러미라’ 라고 불리우고 있는 약물로 가격이 필로폰, 날부핀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일부 여성들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 등에게 널리 남용되고 있음



[그림 1-16] 덱스트로메토르판

- 카리소프로돌은 근육이완제로서 일명 ‘S’ 정 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약물로서 러미라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고 여성들에게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 널리 남용되고 있음

(6) 펜플루라민(Fenfluramine)

- 중국, 태국 등지에서 중국교포 보파리 장수, 관광객,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

을 통해 밀반입 되고 있는 약물로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분미립편·섬수·상주청·철심감미교환·패씨감비환·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음



[그림 1-17] 펜플루라민

- 과다 복용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음

(7) 케타민(Ketamine) 등

-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케타민 등 5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 이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6. 2. 16.부터 시행
-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안전한 약물이지만 의존성 및 금단증상이 있으며, 특히 동물용의약품으로 유통시 유통질서가 문란하여 그 남용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현재 미국의 경우 통제물질 Schedule III, 홍콩의 경우에는 통제물질 Schedule I 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UN에서는 향정신성물질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또한 캐나다에서는 마약류로, 콜롬비아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음

- 유흥업소 및 클럽에서 ‘date rape drug’로 불리며, 정맥이나 근육에 주사하거나 흡연 또는 흡입할 경우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으며, 남용방식에 따라 1~6시간 정도 환각효과가 지속되는 반면, 맥박 및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동반



[그림 1-18] 케타민

- 이외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아민엠티”,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A”, 및 불면증 치료제인 “쿠아제팜” 도 그 남용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

3) 대 마

가) 개 요

- 대마는 칸나비스속 일년생 식물로서 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으나 의학용으로 사용한 기록은 없음



[그림 1-19] 대 마

-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삼(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역사가 오래된 식물임.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음
-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그 원산지라고 하며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전부터 도취를 초래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음
-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神農)황제시대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와 섬유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도취감을 얻기 위한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되었음
- 흡연용으로 대마초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이후부터임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나) 종 류

(1) 대마초(大麻草)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그 학명이 Cannabis Sativa Linne이며 북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리화나(Marijuana)라고 불리고 있음
- 그 중 암나무의 경우에는 씨앗 생성시기에 비교적 풍부하게 생성되는 THC(tetrahydrocannabinol)라는 물질 때문에 도취, 환각상태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h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함. 한편 마리화나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함



[그림 1-20] 대마초와 흡입기구

-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됨. 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꾸는 듯한 느낌, 공복감 등을 느끼며 사고의 형성 및 표현의 예민한 변화와 함께 시각, 후각, 촉각, 미각 등도 오묘하게 변화하는 반면, 많은 양을 남용할 때에는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집중력의 상실, 자아상실, 환각, 환청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제3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함
- 대마의 남용이 위험한 것은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대마보다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로 사용을 전이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음

(2) 해쉬쉬(Hashish)

-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여러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이 해쉬쉬(hashish)인데, 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 등의 덩어리이며 약 10%의 THC를 함유하고 있어서 대마초보다 8배 내지 10배 가량 작용이 강함
- 보통 1kg의 해쉬쉬를 제조하기 위해 약 30kg의 대마초 처리를 요함



[그림 1-21] 해쉬쉬

- 
- 해쉬쉬 오일(Hashish Oil)은 대마로 증류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고도로 농축되어 추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약 20%에 이르는 물질임
 - 대마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초래하기도 함

3. 마약류별 특성

분류		종류	약리작용 (흥분/억제)	의약용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시간
마약	천연 마약	아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3~6
		모르핀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신체조정력 상실,	
		헤로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사망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주사 코흡입	흥분, 정신혼동, 사망	2
	합성 마약	메사돈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아편과 동일	12~24
		염산페치딘	억제	진정·진통	주사	아편과 동일	3~6
향정 신성 의약품		메스암 페타민	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시, 환청, 환초, 피해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수면	경구 주사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1~6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 주사	”	4~8
		LSD	환각	없음	경구 주사	환각, 환청, 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진통	주사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3~6
		덱스트로 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억제	진해거담	경구	취한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	억제	식욕억제	경구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6~8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경구 주사 흡연	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1~6
대마	대마	환각	없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 환각	2~4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 동향

1. 국제 개황

가. 거래 규모

-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5에 따르면, 2003년 전세계 불법마약 시장규모가 생산가액으로 130억불, 도매가 940억불, 소매가로는 3,220억불인데, 소매가액의 경우 세계 184개국 중 약 88%에 해당하는 163개국의 2003년 GDP 합계보다 높으며, 도매가는 2003년 원료물질 수출액의 약 12%(794억불) 규모이며, 마약류 불법거래로 인한 돈세탁 규모는 연간 2,500억 달러로 추정됨
- 이중 대마초 거래규모는 도매가로 1,130억불, 코카인 710억불, 아편류 650억불, 대마수지(해쉬쉬) 290억불, 암페타민류가 440억불로 추정됨

나. 남용 규모

-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6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최근까지 1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마약류를 경험한 전세계 마약류 남용자 수는 약 2억 명으로, 15~64세 세계인구의 약 5%로 추정됨. 이 가운데 월(月) 최소 1회 이상 마약류를 남용하는 자의 수는 약 1억1,000만 명(전세계 15~64세 인구의 약 2.7%), 상습중독자 수는 2,500만 명(전세계 15~64세 인구의 약 0.6%)으로 추정
- 이들 가운데 대마 남용자는 지난해 보다 약 200만 명 늘어난 1억6,200만 명,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남용자는 3,500만 명(암페타민류 2,500만 명, 엑스터시 1,000만 명), 이 외에 아편류(헤로인, 몰핀, 아편) 남용자 1,600만 명(이중 헤로인 1,100만 명), 코카인

남용자 1,300만 명으로 추정됨

- 지난 10년 간 대마 및 ATS 남용은 상당히 증가한 반면, 아편과 코카인남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감소함. 특히 ATS의 경우 2003년 안정화 추세 이후 극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남용 확산으로 다시 증가함. 아편류 남용은 2003년과 2004년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생산 증가로 주변국가와 동아프리카 아편 경유국, 동남유럽의 발칸루트 주변국의 남용이 증가한 반면, 황금의 삼각지대, 특히 미얀마, 라오스의 아편생산 감소 영향으로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아편남용은 감소, 북미와 서유럽은 안정적 추세로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함. 코카인의 경우 미주지역은 감소, 유럽 및 아프리카는 증가추세임

다. 마약류 생산 및 유통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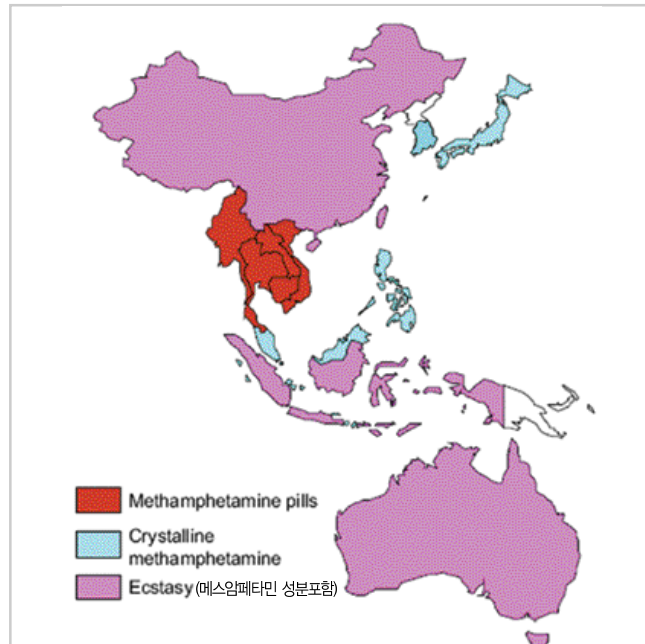
- 아편(Opium) 및 헤로인(Heroin)
 - 2005년 양귀비 재배지는 주요 생산국가(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의 양귀비 작감소로 인해 지난해 약 195,940헥타르보다 약 22% 감소한 151,500헥타르이며 아편생산량은 전년대비 4,850톤에서 약 5% 감소한 4,620톤임. 특히 ‘황금의 삼각지대’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양귀비 재배면적이 지난 1998년 이후 약 78%가 감소
 - ※ 2002년 이후 최근 4년 간 황금의 삼각지대 아편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생산이 감소하지 않아 전세계 아편 생산량도 평균 4,730톤으로 안정적임. 2005년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 이후 양귀비 재배면적은 처음으로 감소하여 104,000헥타르(전년대비 21% 감소)이나, 아편 생산량은 2004년도와 비슷한 4,100톤으로서 전세계 아편 생산량의 약 88%를 차지함
 - 미얀마의 ‘SURA’, 중국의 ‘삼합회’ 등 국제마약밀매 조직들은 주로 이란, 발칸반도 주변 국가들을 통해 미주, 유럽(특히 중부 및 서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등으로 밀반출하고 있음

● 코카인(Cocaine)

- 전통적인 코카 재배지역인 안데스산맥 주변 국가들의 코카인 재배면적이 2000년 이후 약 29% 감소하였으나, 특히 지난 4년 연속 코카 재배면적이 감소한(2000년 이후 약 50% 감소)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약 8% 증가함에 따라 2005년 전세계 코카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159,600헥타르임. 2005년 전세계 코카인 잠재 생산량은 910톤으로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됨
- 콜롬비아 마약조직인 '라코스타 카르텔', '칼리 카르텔' 등은 주로 중미, 동·서부아프리카 지역을 경유하여 미국, 중남미 및 유럽전역으로 밀반출하고 있음

● 암페타민류 각성제 (ATS : Amphetamine-type Stimulants)

-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05에 의하면, 2003년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전세계 마약류 압수건의 약 13%를 차지, 특히 중국, 필리핀, 태국 등 동아시아 및 유럽, 미주지역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500여 톤 가량이 생산, 유통되고 있음
- ATS는 지난 10년 동안 압수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마약류로서, 2004년 중국의 압수량 감소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29.2톤)하였던 전세계 압수량은 2005년에 35톤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World Drug Report 2006에 따르면, 2004년 전세계 ATS 추정 생산량은 약 480톤으로 전년도 445톤보다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이 가운데 메스암페타민 제조와 밀매지역도 아시아 및 북미지역을 넘어 남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확산됨
-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중국, 미얀마, 필리핀 및 미국 등지에서 생산되어 한·중 마약 밀거래조직,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 대만 '죽련방' 조직 등에 의해서 일본·대만·한국 등 동북아 및 미주, 유럽 등지로 밀반출되고 있고, MDMA(Ecstasy, 엑스터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서 생산(연간 1,000만정 규모)되어 유럽전지역, 호주, 미주 및 한국 등 동남아시아에 무차별 공급되고 있음. 최근에는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합성마약 성분이 포함된 MDMA가 중국에서 크게 남용되고 있는데, 점차 그 주변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1-22] 2005년 동남아시아 지역 메스암페타민 남용현황

- ATS의 형태와 관련,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을 첨가한 ‘야바(yaba)’ 또는 ‘야마(yama)’라는 알약형태의 정제형 메스암페타민은 메콩강 접경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및 베트남)에서, ‘ice’ 또는 ‘샤부’(shabu)와 같은 크리스탈 형태의 메스암페타민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및 필리핀에서 주로 남용되는 마약류임
- 또한 ‘펜플루라민’이나 ‘펜터민’ 등의 성분이 함유된 중국 및 태국의 ‘살 빼는 약’이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에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LSD, GHB(gamma hydroxybutyrate) 및 동물마취제인 ‘케타민’의 남용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급증하고 있어 UN을 비롯한 주요 국제회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음
- 대마(Cannabis)
 - 대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환각제로서, 한 해 평균 생산량은 약 40,000톤 이상이며, 2005년 전세계 잠재 생산량은 45,000톤으로 전년도 42,000톤

보다 약 7% 증가함. 미주지역이 전세계 대마초 생산량의 약 54%, 아프리카 26%, 아시아가 1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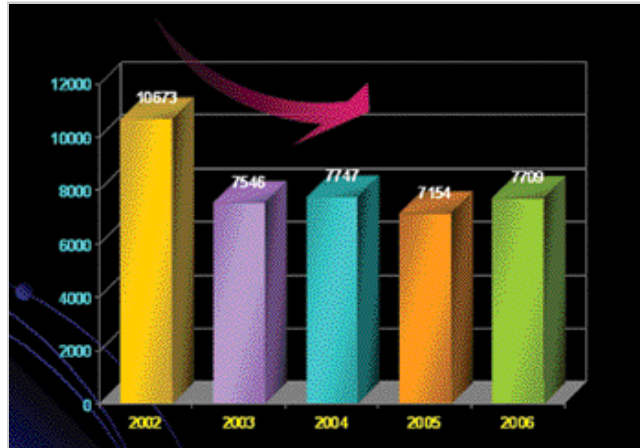
- 전세계 마약류 압수량의 약 2/3를 차지하는 대마(대마초, 해쉬쉬) 압수량은 지난 5년간 2001년 이후 감소추세인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5년 대마초 압수량은 전년대비 약 33% 감소한 4,243톤임. 해쉬쉬(대마수지) 압수량도 최근 3년간 증가추세였으나 2004년 1,470톤에서 2005년 1,266톤으로 감소함
- 대마는 대마초, 해쉬쉬(대마수지) 형태로 가공되어 중동지역과 동남아, 북미지역으로 밀반출되는데, 대마초는 아프리카와 북·남미지역에서, 해쉬쉬는 주로 아시아와 유럽지역에서 압수됨. 특히, 모로코는 유럽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스페인을 통해 유럽 각국으로 밀수출하고 있음

2. 국내 개황

가. 일반동향

- 그동안 마약류사범퇴치전략의 성공적 수행으로 2003년부터 1만명 이하로 감소되었고 검찰이 주축이 되어 국내 마약생산 및 공급조직을 철저히 단속한 결과, 국내 대부분의 마약밀조조직 및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1차 공급조직은 거의 꺾멸된 상태라고 보여 짐
 - ※ 실제로 2004년 이후부터는 국내 밀조조직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은 외국에서 밀수되고 있는 것에서도 이러한 점이 증명되고 있음
- 그러나 2006년도부터 전체 마약류사범은 7,709명으로 전년도 대비 7.8% 증가하였고, 밀조, 밀수, 밀매 등 공급사범 또한 1,691명으로 전년도 대비 18.2%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국내 주종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외국산 밀반입량은 15,287g으로 전년대비 14.7%나 증가하였고, 압수량 또한 13,540g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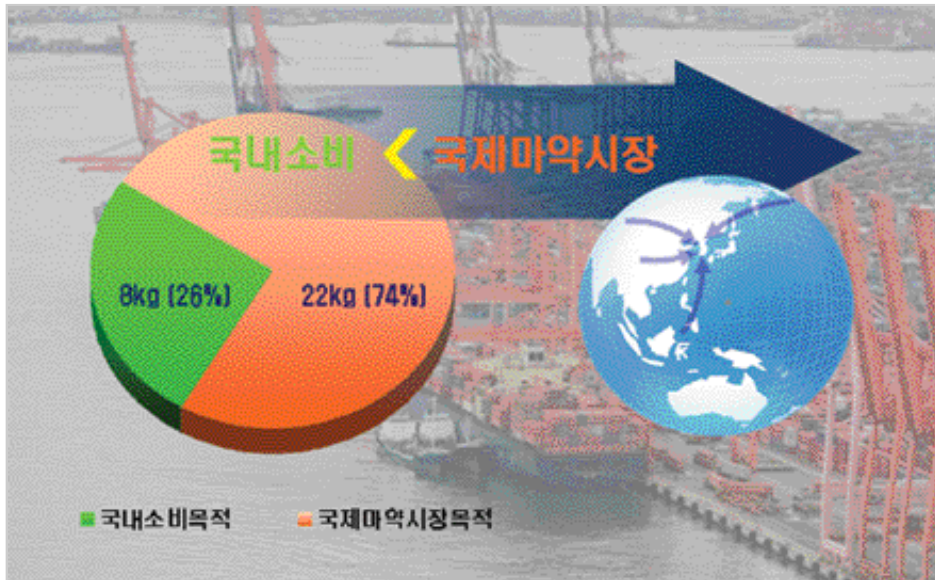
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임



[그림 1-23]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나. 경유 목적 마약사범 증가

- 필로폰 관련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바, 물론 필로폰이 우리나라의 주종 마약류로 그 잠재적 수요층이 상존하는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제 거래조직이 우리나라를 transit point 즉 마약경유지로 이용하거나 우리 국민을 마약운반책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 중요한 원인이 있음
- 먼저 2006년도에 적발된 필로폰과 코카인의 거래유형을 분석해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거래량 약 30kg 중 한국을 경유하여 국제마약시장으로 다시 밀수출 되었거나 밀수출하려다가 적발된 양이 22kg으로서 국내 소비목적으로 거래된 8kg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 이는 국제거래조직이 우리나라를 transit point로 활용하고 있음을 반영
- 특히 그동안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유엔과 세계 각국의 협조 하에 헤로인 원료물질인 아편(Opium) 재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아편을 커피 등으로 대체하는 대체작물 지원정책이 대대적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지역 국제 마약거래 조직은 2003년 이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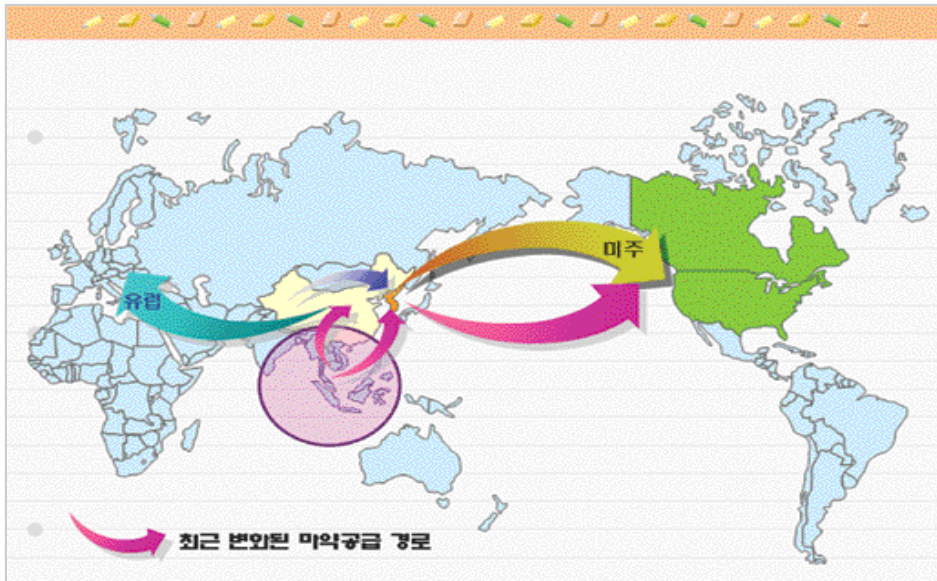
[그림 1-24] 필로폰, 코카인 거래 목적(2006)

※ 총 밀수량 중 경유목적 거래량(74%)이 국내소비 목적 거래량(26%)을 압도적으로 추월
 ※ 거래량 : 압수량+실제유통된 량

배를 통한 헤로인 생산 대신 작은 공간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필로폰을 대체 마약물질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주종 마약류가 아편, 헤로인에서 필로폰으로 변화하고 있어 위와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다. 마약류 공급경로 다양화

- 또한 지금까지 필로폰 최대 생산지 중 하나였던 중국에서 최근 필로폰 밀조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자 2004년도 이후 중국 내 필로폰 제조사범들이 비교적 필로폰 단속이 미약한 라오스,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로 생산 및 공급 근거지를 이동하고 있어 기존 필로폰 공급경로인 중국-한국-미주, 유럽에서 동남아-한·중-미주, 유럽 내지 동남아-미주·유럽-한국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그림 1-25] 최근 마약류 공급경로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일시적 감소

- 외국인 마약사범은 국내 경기상황에 따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감에 비례하여 일정한 주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속인원은 2001년 70명, 2002년 88명, 2003년 86명, 2004년 203명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162명, 2006년 116명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상태임
- 1995년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던 외국인 마약사범이 1998년도 IMF체제로 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일시 출국하자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1999년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136%나 증가하는 급증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도에는 전년대비 20.2% 감소한 162명, 2006년도에도 전년대비 28.4% 감소한 116명을 적발하였음
-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2005년도에 법무부에서 검찰과 합동으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입국심사를 엄격히 하자 상대적으로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장



기적으로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증가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국적별로는 1997년도 이후 이란인과 필리핀인이 대부분을 점유하다가 2000년도 이후 미국인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는 미국인이 1위(31.8%)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3.7%, 29.1%, 16.0%를 차지한 이란인이 1위를 차지하였고 2006년에는 다시 미국인이 1위(39.7%)를 차지하였음